안녕하십니까.

약학을 공부하며 미래의 보건의료 현장을 준비하고 있는 약대생 김도연입니다.

저는 약대생으로서 현장에서 배우고 느낀 경험을 바탕으로, 환자의 안전과 건강이라는 보건의료의 본질적인 가치를 바탕으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비대면 약 배송 문제는 단순히 약을 약국에서 받을 것인지, 집에서 받을 것인지에 관한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약이 환자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약을 전달하는 과정에서도 환자의 안전과 건강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는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저는 약학을 공부하면서, 환자에게는 건강할 권리와 약물을 안전하게 사용할 권리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권리를 지켜내는 일이 약사의 책임이라는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약물 안전은 약에 대한 지식만으로는 확보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환자를 이해하고, 환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찾아내며, 그에 따른 판단에 책임을 지는 과정이 있어야 비로소 의약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난 여름 다제약물 관리사업에 참여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약사님께서 환자분의 약을 하나하나 살피며 중복 성분은 없는지, 오래된 약은 없는지 확인하시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환자분 팔에 든 멍을 보시고 "이거 오래되셨어요?"라고 물으셨습니다. 환자분은 한번 든 멍이 잘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셨고, 약사님께서는 지금 환자분께 오메가3는 필요하지 않을 것 같다며 잠시 복용을 중단해 보시라고 권하셨습니다. 환자가 무심코 이야기한 건강기능식품 하나, 약사가 놓치지 않은 작은 단서 하나가 새로운 중재의 근거가 된다는 것을 그때 배웠습니다.

또 선배님의 약국에서 본 장면 하나가 기억에 남습니다. 와파린을 복용하는 어르신들에게 녹황색 채소 섭취를 안내할 때였습니다. 어르신들께서는 단순히 섭취를 줄이라고 하면 아예 먹지 말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실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셨습니다. 그래서 평소 드시던 만큼은 유지하시되 식습관을 새로 시작하거나 바꿀 때에는 반드시 병원에 알리도록 당부하셨습니다.

환자가 어떤 의미로 받아들일지를 미리 헤아리고, 그에 맞게 설명을 조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저는 약사의 역할이 단순히 약을 정확하게 건네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약은 일반적인 상품과 다릅니다. 처방전에는 환자에게 필요한 약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환자가 실제로 그 약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약물 사용에 어려움은 없는지까지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물론 약국 현장에 서는 바쁜 업무 속에 충분한 상담 시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환자 역시 자신의 증상이나 복용 이력을 빠짐없이 이야기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중요한 것은, 환자가 약물 사용에 대해 충분한 설명과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약사의 상담을 뒷받침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는 개별 약사나

환자의 노력에 맡길 일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고 보장해야 할 일입니다.

현재 논의되는 약 배송 정책에서 제가 우려하는 지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약 배송이 필요한 환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거동이 불편 하거나 의료 접근성이 낮은 환자들에게는 약을 전달하는 새로운 방법이 필요할 수 있습 니다. 그러나 현재 법적으로 허용된 제한적인 약 배송조차 현장에서 안전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배송 과정에서 의약품의 품질을 어떻게 관 리할 것인지. 환자에게 충분한 복약상담을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 배송 중 사고가 발생했 을 때 누가 책임질 것인지.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도가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환자의 의약품 사용 안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충분히 검증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이 선행되지 않은 채 약 배송의 대상을 비 대 면 진 료 일반 환자 전체로 확대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약 배송이 누구를 위한 제도인지도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자료 및 국회입법조사처 분석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 시행 이후 비급여 의약품 처방 비중이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상당수가 탈모치료제와 여드름 치료제 등 특정 비급여 의약품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대면 진료와 약 배송이 도서·산간 지역 주민이나 이동이 어려운 중증 환자 등 '의료 접근성이 낮은 취약계층의 건강권 보장'이라는 본래 취지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약 배송이 정말로 필요한 환자들에게 안전하게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지, 아니면 오남용 우려 의약품의 손쉬운 창구로 변질되고 있는지 반드시 면밀하게 살펴보고 엄격히 평가해야 합니다.

정책은 막연한 편의성, 시장의 성장 가능성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에 실질적으로 어떤 도움이 되는지를 기준으로 수립해야 합니다.

또한 의약품 이용 과정이 민간 플랫폼의 수익구조에 종속될 경우, 환자에게 필요한 적정한 의약품 사용보다 처방과 거래의 확대가 우선될 위험은 없을까요? 보건의료정책은 의약품 소비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의약품 사용을 줄이고 환자의 건강을 지키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약사는 환자와 직접 소통하며 처방전만으로는 알 수 없는 정보를 확인합니다. 복약 방법을 바로잡고, 때로는 처방을 재확인하기도 하며 환자가 구매를 원하더라도 기존 조제약과의 약물 상호작용이나 중복 투여 위험이 확인되면 판매를 만류하고 안전한 대안을 제시합니다

미래의 약사들이 전문적 판단을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보건의료인으로서 전문성과 양심이 경제적 이해관계에 흔들리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보호하는 것. 그것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환자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고, 그 판단에 책임지는 약사가 되기를 꿈꾸며 공부해 왔습니다. 하지만 졸업을 앞둔 지금, 한 가지 걱정이 있습니다. 제가 지켜온 이 신념을 실제 현장에서도 지킬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입니다..

저는 환자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일이 특별한 용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 보건의료 현장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환자의 안전을 우선하겠다는 저의 다짐도 현실 앞에서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환경에서 약사로서 첫걸음을 내딛고 싶습니다.

약을 정확히 건네는 일은 약사의 책임이며, 그 위에서 환자가 약을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돕는 일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지키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약국이라는 공간이나 기존의 업무 방식이 아닙니다. 환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상황을 살피고, 의약품 사용에 책임을 지는 약료의 가치입니다.

약을 건네는 일을 넘어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정책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구호를 외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의료민영화 부추기는 비대면진료. 약배송확대 중단하라